

남해군, 남해각서 만나는 체험형 전시회 연다

기사입력 : 2022년12월07일 14:15 | 최종수정 : 2022년12월07일 14:15

[남해=뉴스핌] 유용식 기자 = 경남 남해군은 오는 9일부터 18일까지 남해각에서 연말 특화 체험형 전시인 '남해 온(溫) 선물' 전시회를 개최한다고 7일 밝혔다.



남해각 연말 특화 체험형 전시 '남해 온(溫) 선물' 전시회 안내문[사진=남해군] 2022.12.07

'남해로 찾아온 따뜻한 선물'이란 의미를 담은 체험형 전시 '남해 온(溫) 선물'은 남해 귀촌 작가와 전국 각지에서 활동 중인 문화예술교육사들이 모여 기획한 이색 체험형 전시다.

이번 전시에서는 패브릭 포스터, 에코백, 테이블 매트와 같은 다양한 작품을 전시함과 동시에 연말 연시 가족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스탬프 카드 만들기', '플랜카드 꾸미기'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도 함께 만나볼 수 있다.

전시 기간 내 생일인 아이들을 대상으로 에코백(선착순10명)을 증정하는 생일 이벤트 등을 마련함으로써 추운 겨울날 따뜻한 연말을 보낼 수 있는 이색 행사도 준비되어 있다.

조영호 남해관광문화재단 본부장은 "전국 각지에서 다양한 색을 가진 문화예술교육사들이 귀촌한 예술가와 협업해 준비한 이번 전시를 통해 남해각이 더 풍성하고 지속가능한 복합문화공간으로 거듭나게 된 것 같아 기쁘다"고 밝혔다.

ryu9259@newspim.com

<저작권자(c)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